

한화, ‘오르카 사업’ 공략… “韓 잠수함으로 국방협력 강화”

〈폴란드 해군 현대화〉

한화그룹 방산3사, MSPO 참가
장보고, K9A2, APS 등 선보

현지 생산 전제 맞춤형 솔루션과
계약 후 6년 이내 납기계획 제시

한화그룹이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 참석하면서 폴란드 ‘오르카 사업’(Orka·해군 현대화 사업) 수주를 위해 총력에 나선다. 앞서 한화오션은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숏리스트(적격후보)에 선정되면서 유럽에서도 종합 솔루션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다.

2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한화그룹 방산3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시스템)는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 2025)에 참가한다. 한화 방산 3사는 이번 MSPO 2025 전시회에 299㎡ 규모의 통합부스를 마련했다.

통합부스는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한화오션이 전진배치 됐다.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 2025)에 참가한 한화 부스에 다연장 천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돼 있다. /한화

오르카 사업은 폴란드가 18~21억 유로(약 2조9000억~3조4000억 원)를 들여 3000t급 잠수함 3~4척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업계에선 폴란드 정부가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독자설계한 장보고-III(KSS-III) 배치-II를 전면에 내세웠

다. 공기불요추진체계(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됐고, 현존 디젤 잠수함 중 최고의 잠항 능력(3주 이상)을 보유한 것은 물론 탄도미사일(SLBM) 등 장거리 타격 능력까지 갖췄다. 잠수함의 길이는 약 89m, 배수량은 약 3000t이다. 한국 해군이 운용하는 최신형 모델이다. 특히 533mm 어뢰관 6개와 자

체 개발한 10개의 수직발사대(K-VLS)를 갖추고 있다.

한화오션은 폴란드 해군과 발트 3국의 연안 작전 환경을 고려한 2000t급 수출형 연안경비함(OPV)과 500t급 미사일 고속정(FMPC), 500t급 무인함 등 현지 생산을 전제로 하는 맞춤형 솔루션도 선보였다.

한화오션은 오르카사업에서 독일과 스페인 등 유럽 경쟁사들과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계약 후 6년 이내 첫 잠수함을 인도하겠다는 빠른 납기 계획도 제시했다.

한화오션 특수선 해외영업팀 이경길 상무는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는 한화오션”이라며 “오르카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시장에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알리고 양국 간의 국방 협력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을 비롯한 한화 방산 3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해양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우주까지 전 영역에서 포괄적인

협력으로 폴란드의 안보와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의 성능개량형 모델인 ‘K9A2’를 MSPO에 처음 공개한다. 포탄을 100% 자동으로 장전해 기존 분당 6발에서 9발 이상 신속히 발사할 수 있으며, 운용 인원은 5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수출형 보병 전투장갑차 ‘K-NIFV’도 폴란드 시장을 겨냥해 첫 전시된다.

한화시스템은 대전차 미사일 등 외부 위협을 선제적으로 감지해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동방호체계(APS)’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우주 및 대공방어 분야에서는 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과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등도 선보인다.

손재일 대표는 “한화는 K9과 천무 사업을 통해 폴란드와의 약속을 지키며 깊은 신뢰를 쌓았다”며 “향후에도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자주국방 및 방산 생태계 전반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oul.co.kr

美, 中 ESS 배터리 관세 인상… 국내 업계, 점유율 확대 기회

美, 내년부터 中에 58.4% 관세 부과
LG엔솔, 美서 LFP 배터리 생산 확대
삼성SDI, 삼원계 배터리 생산 시작
SK온, 연내 ESS 수주 목표 속도

미국이 내년부터 중국산 에너지 저장장치(ESS)용 배터리에 부과하는 관세를 올해 40.9%에서 58.4%로 인상할 예정이다. 중국 견제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에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는 현재 기본 관세·상호 관세·펜타닐 관련 보복 관세가 합산돼 40.9%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관세율이 25%포인트 인상돼 최종 58.4%에 달할 전망이다. 무역법 301조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 및 보복 조치를 규정한



LG에너지솔루션의 전력망용 ESS 배터리 컨테이너. /LG에너지솔루션

조항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무역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됐다.

이로 인해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IM증권 리서치본부에 따르면 40.9% 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공급 가격은 약 82.4달러지만, 내년 58.4% 세율이 적용되면 약 87.3달러로 상승한다. 이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LFP 배터리 셀의 예상 가격(85~90달러)과 사실상 동일하다.

시장 점유율 변화도 예상된다. 올해 미국 ESS 시장에서 중국은 약 65%, 한국은 13%를 차지하지만 내년에는 중국 55%, 한국 23%로 격차가 좁혀지고 오는 2027년에는 양국이 각각 40%씩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액공제 요건 역시 중국산 배터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라 연방투자세액공제(ITC)와 첨단세액공제(AMPC)를 받기 위해서는 ‘우려 외국 기업’이 제공한 부품의 제조원가 비중이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되며 이 요건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기준은 2026년 45%에서 시작해 2027년 40%, 2028년 35%, 2029년 30%, 2030년 이후에는 25%로 점진적으로 강화된다.

이처럼 고율 관세와 규제 강화로 중

국산 부품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늘어나는 ESS 수요와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6월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으며, 올해 17기가와트시(GWh) 규모의 생산 능력을 내년 30GWh로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SDI는 연말부터 ES용 삼원계 배터리 생산을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LFP 배터리 생산 설비를 추가할 예정이다. 양사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RE+(Renewable Energy Plus) 2025’ 전시회에서 신제품을 선보인다.

SK온은 아직 ESS 시장에 본격 진입하지 않았지만 연내 수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삼성전자 로봇청소기 신제품 보안인증 최고 등급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 신제품이 보안 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 받았다.

삼성전자는 2025년형 로봇청소기 신제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에서 최고 등급인 ‘스탠다드(Standard)’ 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KISA의 IoT 보안 인증은 로봇청소기, 홈캠, 스마트가전 등 일상 속 IoT 기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해킹이나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여부를 평가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비스포크 AI 스티프’ 로봇청소기로 국내 최초 스탠다드 등급을 획득했으며 현재까지 스탠다드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2025년형 ‘비스포크 AI 스티프’ 로봇청소기 신제품은 한층 강화된 보안 솔루션이 적용됐다. 삼성전자의 독자 보안 솔루션인 삼성 녹스는 물론, ‘녹스 매트릭스’의 트러스트 체인 기술을 새롭게 탑재해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기기가 서로의 보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위협을 감지해 차단한다.

또 비밀번호나 인증정보, 암호화 키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하드웨어 보안 칩에 별도 보관하는 ‘녹스 볼트’도 탑재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한다.

2025년 비스포크 AI 스티프 신제품은 5일(현지시간)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25’에 전시되며, 연내 출시 예정이다.

삼성전자 DA사업부 김덕호 상무는 “삼성 비스포크 가전에 탑재된 녹스 기반의 강력한 보안 성능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HD한국조선해양, 필리핀 첫 선박 건조 돌입

아시아 선사 수주물량 중 첫번째

HD한국조선해양이 베트남에 이어 필리핀에서도 해외 조선소 성공 역사를 이어간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2일 필리핀 수빅만에 위치한 ‘HD현대필리핀조선소’에서 11만 5000톤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건조를 위한 강재 절단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지난해 12월 아시아 선사로부터 수주한 총 4척의 시리즈선 가운데 첫 번째 물량이다. 행사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 메리케이 칼슨(MaryKay Carlson) 주필

리핀 미국대사, 이상화 주필리핀 한국대사,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내 조선소들이 벌크선, 탱크 등 일반 상선 시장에서 중국에 밀려 고전하는 가운데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 필리핀이 경쟁력 회복과 시장 재탈환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선소 출범은 한·미·필리핀 3국 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실제로 HD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HD현대중공업은 2022년 필리핀에 군수지원센터를 설립해 호위함과 초계함 등 합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英 옥토퍼스, 클린테크 사업 ‘맞손’

유럽서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 선택

LG전자가 영국 전력회사 옥토퍼스 에너지(이하 옥토퍼스)와 손잡고 유럽 클린테크 시장에 솔루션 공급을 확대한다.

LG전자는 옥토퍼스와 지난 8월 28일 영국 런던 옥토퍼스 본사에서 클린테크 분야의 전략적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옥토퍼스는 30개가 넘는 국가에서 1000만 명 정도의 고객을 보유한 전력 공급 회사다. 탈탄소를 목표로 현재 영국을 중심으로 가스 보일러 대신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양사는 LG전자의 고효율 히트펌프



(왼쪽부터) LG전자 해외영업본부장 윤태봉 부사장과 옥토퍼스 CEO 겸 설립자 그레그 잭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냉난방시스템과 옥토퍼스의 크라켄을 연동시킨 솔루션을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